씨앗은 어디에

김중혁

소설가

구영대와 신상도는 30년 동안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일종의 프로젝트형 프리랜서들이라 불러야 할까. 각자 일을 하다가 큰 건수가 생기면 연락해서 힘을 합친다. 각자의 전문 영역이 있다. 구영대는 빈집을 귀신같이 터는 도둑이고, 신상도는 금고와 프로그램 해킹과 CCTV 전문가다. 30년 전 우연히 함께 일을 한 후에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매료됐고,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 우정이라고 말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긴박한 상황에 직면하면 두 사람 모두 서로를 배신할 게 분명하지만, 다행히 30년 동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운이 좋았다. 배포가 작은 탓이다. 둘 다 인생 역전 한 방을 꿈꾸지 않았다. 소소하게 먹고, 적당하게 살찌고, 욕심을 내지 않으며,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원칙대로 움직였다.

"도둑 주제에 위험한 곳에 가지 않는다는 원칙이 말이 되는 거야?"

누군가 이렇게 묻겠지만, 구영대와 신상도는 위험한 곳엔 가지 않았다. 두 사람을 돕는 또 다른 파트너 '알프(ALF)' 덕분이다. '알프'는 범죄 계획을 입력하면 위험지수를 알려준다. 범죄 대상, 장소, 경비 상태 등을 고려해서 위험지수 5퍼센트에서 95퍼센트까지 알려준다. 현장에 함께 가면 실시간 위험지수도 알려준다.

몇 년 전에 타계한 작곡가 정민수의 악보를 훔치러 갔을 때, 알프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민수와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던 피아니스트 류지환이 미공개 악보들을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류지환은 은퇴한 후 시골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알프와 함께 출발했다. 휴대전화 신호도 간신히 잡히는 산골이었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작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류지환이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렸다. 컵라면과 볶음김치를 먹으면서 버텼다. 사흘이 지났는데도 류지환은 외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알프가 알려주는 위험지수는 80퍼센트였다.

"알프, 80퍼센트가 맞아?"

신상도가 물었다.

"집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폭력과 마주쳐야 합니다."

의자 크기 정도의 알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사람이 외출하면?"

"소형 드론을 띄워서 집주인의 동선을 파악할 겁니다. 집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치면 위험지수는 10퍼센트 미만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아, 알프. 구입하길 잘했다."

"감사합니다."

"알프, 궁금한 게 있는데……. 너는 죄책감이나 윤리 의식 같은 게 장착돼 있나? 무슨 말이냐면, 범죄인을 돕는 게 괜찮냐는 뜻이야."

"신상도 님은 죄책감이나 윤리 의식이 장착돼 있습니까?"

"나는 장착돼 있지."

"그렇다면 신상도 님은 어째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나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른 일을 하고 싶지만, 나한테 맞는 일이 없더라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 소유자를 돕는 게 저의 일이니까요."

"아이고, 로봇한테 아주 잘하는 짓이다."

얼굴에 수건을 덮고 잠을 청하던 구영대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로봇 아니고 에이아이라고요."

"그래 에이아이하고 수준 높은 대화 나누고 계시네. 도둑놈 돕는 거니까 너도 도둑놈이다 그러는 거 아녀."

"위험지수가 5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알프가 작고 단호한 목소리로 두 사람의 대화를 끊었다.

"응? 그래? 왜 50퍼센트지?"

류지환이 집 밖으로 나서고 있었다. 오토바이에 앉아 시동을 켰다. 3일 만의 외출이었다. 알프는 자신의 가슴에 들어 있던 소형 드론을 꺼내서 전원을 켰다. 류지환이 오토바이를 타고 언덕 아래로 사라졌고, 소형 드론이 그 뒤를 쫓아갔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여섯 곡의 악보를 훔칠 수 있었고, 무사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류지환이 가지고 있던 정민수의 악보를 도난당했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브로커에게 물건을 넘긴 뒤였다.

"이번에는 취소해야 되는 거 아냐? 시작하기 전부터 위험지수가 너무 높아."

구영대가 마스터키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면서 말했다.

"영대 형, 40퍼센트면 괜찮은 거야. 류지환이 살던 시골집은 들어가기도 전에 80퍼센트였잖아."

신상도는 알프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재부팅시키는 중이었다.

"그거야 사람 사는 집이니까 그런 거고. 이번에는 사람 안 살고 컴퓨터가 보안을 담당하는 곳인데 40퍼센트면 너무 높은 거 아녀?"

"자, 재부팅 완료했고요. 알프, 위험지수가 40퍼센트인 이유를 말해줄래?"

"위험지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람과의 대면 가능성입니다. 이어서 보안 등급, 탈출 경로 확보 유무, 은폐와 엄폐 지역 개수 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에덴의 씨앗'을 보관하고 있는 '씨앗 은행'은 인간이 상주하고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탈출 경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어서 헬기를 동원하지 않으면 즉각적인 퇴로 확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데를 하자고? 너 제정신이야? 퇴로 확보가 불가능하다잖아."

구영대가 자세를 고쳐 잡고 앉았다.

"영대 형, 내가 누구야? 응? 신상도야. 신세계의 상급 도둑 신상도라고. 계획을 다 세워놨지."

신상도가 거드름을 피며 말했다.

"그럼 뭐, 헬기라도 불렀어?"

"헬기보다 더 대단한 걸 불렀지요."

"그게 뭔데?"

"드론."

"드론을 타고 빠져나온다고?"

"숲이 울창해서 드론을 띄워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아. 새들이 좀 위험하긴 한데, 최신형 드론 알아봤더니 충돌 회피 기능이 몰라보게 좋아졌더라고. 그거면 충분해요."

"우리 두 사람 무게를 감당해? 아니지, 알프 무게까지?"

"알프는 알아서 빠져나올 거야."

"알프한테 드론으로 탈출할 거란 얘기해봤어?"

"안해봤지."

"해봐."

"에이, 그러다 위험지수가 갑자기 오르면 어떡해."

"그럼 작전을 취소해야지."

"알프가 좋은 에이아이이긴 하지만 최신 정보 업데이트 기능이 조금 부족해. 요즘 드론의 어마무시한 기능을 이해 못할 거야."

"일단 넣어봐. 안 그러면 나 이번 일 안해."

신상도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기존의 작전 정보에다 드론의 정보와 최신 기능을 추가했다. 알프는 곧장 결과를 출력했다.

"위험지수는 20퍼센트로 낮아졌습니다."

"그거 봐, 형. 괜찮다니까."

작전 당일, 구영대와 신상도는 자동차를 타고 씨앗은행으로 향했다. 숲으로 둘러싸인 곳이었기 때문에 준비물이 전보다 많았다. 옷 역시 식물 패턴으로 골라 입었고, 땅을 팔 수 있는 야전삽도 준비했다. 씨앗은행으로 가는 자동차 안에서 구영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 이번 일 끝내면 은퇴할까 싶어."

"뭔 소리야. 재능을 왜 썩혀?"

신상도는 고개를 돌려 조수석에 있는 구영대를 바라보았다. 구영대는 멍한 눈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외박하고 출장이 많은 일은 이제 힘들어. 가게 하나 차리려고."

"무슨 가게요?"

"CCTV랑 드론 파는 가게."

"요새 그걸 누가 가게에서 사요. 다 인터넷으로 사지."

"물건만 파는 게 아냐. 드론 교육도 하고, CCTV 영화제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영화제요?"

"재미있지 않겠냐? CCTV 영화제. 나 요새 그런 상상하면 재미있더라."

"형, 영화 같은 거 보면요, 도둑들이나 조직폭력배 같은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나 이번 일 끝나면 손 씻는다'. 그러고는 다들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손 씻어?"

"손을 어떻게 씻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음. 그랬던가? 내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에덴의 씨앗'으로 정원 사업이나 해볼까? '에덴의 씨앗'만 있으면 황폐한 땅을 살릴

수 있다잖아. 돈도 벌고, 환경도 되살리고 좋잖아."

"그걸 팔아서 생긴 돈으로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가? 모르겠다, 내 인생. 아무튼 끝나고 생각하자."

뒷자리에 앉은 알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구영대와 신상도는 씨앗은행 근처의 공터에 자동차를 세워두고 장비를 점검했다. 알프의 가슴에 달린 화면에는 실시간 위험지수가 표시되고 있었다. 19퍼센트와 20퍼센트를 번갈아가면서 보여주었다.

구영대는 씨앗은행의 지하 배수관을 잠입통로로 선택했다. 구형 자물쇠를 잠금장치로 사용하고 있었다. 구조가 복잡하고 열기 까다로운 자물쇠였지만 구영대는 쉽게 분해할 수 있었다. 구영대가 앞장서고 그 뒤를 신상도가 따라갔다. 맨 뒤에서 알프가 쫓아왔다. 신상도는 가끔 고개를 돌려 위험지수를 확인했다.

"현재 위치는 씨앗은행의 보안 구역 외곽입니다. 곧 주요 보안 구역에 진입합니다. 위험지수 22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알프가 보고했다.

"알프, 이거 잠금 해제하려면 몇 분 걸릴 거 같아?"

신상도가 물었다.

"잠금 해제 예상 시간은 42초입니다. 현재, 외부 신호 감지됩니다. 변수 발생. 순찰 드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알프가 대답했다.

"드론? 여기 드론이 있다고?"

"1분 후에 드론과 마주칩니다. 위험지수 45퍼센트로 상승했습니다."

"방해 신호 발사할 수 있어?"

"가능합니다. 30초 동안 드론의 통신이 차단됩니다."

알프가 문을 열었고, 구영대가 에덴의 씨앗을 챙겼다. 신상도는 휴대전화로 드론을 대기시켰다. 1분 만에 모든 작전이 완료됐다.

"형, 우리가 해냈어요."

신상도가 드론에 올라타면서 소리를 질렀다.

"휴, 고생했다."

구영대가 드론에 기대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드론이 날아올랐다. 드론에는 스무 개의 작은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었고, 아래쪽에 구영

대와 신상도가 등을 맞대고 앉아 있었다. '호버 바이크'에다 놀이 시설인 '자이로드롭' 의자를 갖다 붙인 모습이다. 바람을 막아주는 몸체가 없어서 속력을 낼수록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두 사람은 대화를 하기 위해 목청껏 소리를 질러야 했다.

"형, 아까 깜짝 놀랐지?"

신상도는 등 뒤에 있는 구영대에게 말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고 소리를 질렀다.

"알프는 잘 오고 있어?"

구영대도 등 뒤에 있는 신상도에게 소리를 질렀다.

"뭐라고?"

"알프도, 잘, 오고 있냐고."

신상도는 알프의 위치를 검색했다. 씨앗은행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드론의 방향을 쫓아오고 있었다.

"잘 오고 있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보았다. 빽빽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위에서 내려다보니 아래의 삶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수많은 생명체가 나무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보이는 건 많지 않았다. 드론이 고도를 낮추었다.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 나무 꼭대기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높이로 아슬아슬하게 날아다녔다. 나무가 파도 같았고, 서핑 보드를 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구영대는 멀미가 날 것 같았다.

구영대는 주머니에 들어 있던 에덴의 씨앗 상자를 꺼냈다. 보석 상자 정도의 크기였다. 열었더니, 아주 작은 씨앗 하나가 들어 있었다. '이게 에덴의 씨앗이라고?'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았다. 구영대는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늘 공부를 했다. 악보를 훔치기 전에는 작곡가의 음악을 들었고, 보석을 훔칠 때는 보석의 역사를 공부했다. 이번에는 씨앗을 공부했다. 신상도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씨앗을 심어보기도 했다. 희귀 씨앗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바오밥나무와 몰로키아 씨앗을 구입했다. 시키는 대로 했지만 싹을 보지 못했다.

씨앗의 중심부에는 '배아(Embryo)'가 들어 있는데, '미니어처 생명체'라고 부른다. 이미 그 속에 줄기, 뿌리, 잎 등이 모두 갖춰져 있다. 그걸 씨앗에서 끄집어내 키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았다. 발아하기 전의 씨앗은 휴면 상태로 지내고 있다. 에너지를 거의 소비하지 않으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몇 년을 버틸 수도 있고, 수천 년을 버틸 수도 있다. 구영대는 그 시간들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구영대는 에덴의 씨앗을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잠자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드론이 덜컹거리면서 크게 흔들렸다. 작은 드론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씨앗은행에서 쫓아온 드론인 것 같았다.

"형, 속력을 좀 내야겠어."

신상도의 말이 끝나기 전에 드론이 급발진했다. 작은 드론은 쫓아오지 못했다.

구영대의 손에 있던 씨앗이 사라졌다. 씨앗을 붙잡고 있던 손가락 모양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던 씨앗은 보이지 않았다.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숲이 빠르게 흘러갔다.

"상도야."

구영대가 소리를 질렀다.

"왜 그래, 형?"

신상도가 대답했다.

"씨앗을, 떨어뜨린 것 같아."

구영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뭐라고? 잘 안 들려."

신상도가 소리를 질렀다.

"씨앗을, 잃어, 버렸다고."

"뭐? 씨앗?"

"그래. 씨앗."

"그게 무슨 말이야?"

"흔들려서, 떨어졌어."

"왜 이제 말해. 어딘데? 드론 돌릴게."

"저기서 어떻게 찾아."

"그래도 가야지. 알프가 찾아낼 거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모르겠어."

"와, 미치겠네."

두 사람이 머뭇거리는 사이 드론은 계속 날아갔고, 씨앗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 구영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나무와 또 나무와 나무들, 그 아래에 있을 여러 발 달린 곤충과 곤충을 먹어 치우는 동물들과 동물의 배설물과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새들과 새를 쫓아가는 날카로운 발톱 달린 동물과 이끼와 버섯과 진흙과 풀들과 그 아래에 있을 씨앗들이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끝>